

“그대의 발자취”: 『선녀여왕』 제 4권과 초서*

임 성 균

숙명여자대학교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선녀여왕』(*The Faerie Queene*) 제 4권, 칸토 2에서 시인은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를 가리켜 “유명한 시인”(renowned Poet)이자 “순수한 영어의 샘물”(well of English undefyled)이라고 칭송하면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The Squire's Tale*)를 자신이 완성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용서해주오, 오 성스럽고 복된 영혼이여,
내가 사라진 그대의 노고를 이처럼 되살려
그대의 마땅한 업적의 열매를 훔치려하니,
그대 생전에는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야 많은 이가 헛된 노력을 하네.
내 감히 견주지 못하나, 내 안에 살아있는
그대의 영혼과의 달콤한 접목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니
내가 그대의 의도에 부응할 수 있기만을 바랄뿐이오.

Then pardon, O most sacred happie spirit,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at I thy fabours lost may thus revive,
 And steale from thee the meede of thy due merit,
 That non durst ever whilest thou wast alive,
 And being dead in vaine yet many strive;
 Ne dare I like, but through infusion sweete
 Of thine owne spirit, which doth in me survive,
 I follow here the footing of thy feete,
 That with thy meaning so I may the rather meete. (IV.ii.34)¹

롱맨(Longman) 판의 편자인 해밀튼(A. C. Hamilton)이 주석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 대목에서 스펜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초서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다(440). 스펜서는 스스로 초서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 이어서 칸토 3까지 그려지는 이야기는 이미 시인이 서두에서 작품의 주제로 소개한 “캠벨과 텔라몬드, 또는 우정의 전설”(The Legend of Cambel and Telamond, or of Friendship)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스펜서의 이야기가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를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거나 캠벨과 텔라몬드의 이야기가 『선녀여왕』 제 4권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우정을 다루는 제 4권은 대부분 브리토마트(Britomart)와 아모렛(Amoret), 스쿠다모어(Scudamore), 아테갈(Artegall), 그리고 플로리멜(Florimell)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더 더욱 흥미로운 것은 3권까지와는 달리, 제 4권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도록 주인공이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권과 2권의 주인공인 레드크로스(Redcross)와 가이언(Guyon)은 물론이지만 3권의 주인공인 브리토마트도 마지막에는 버지레인(Busyrane)을 제압하고 아모렛을 구출하는 과업을 성취한다. 하지만 제 4권은 누가 주인공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거나, 의인화된 강들의 결혼을 계기로 마리넬(Marinell)이 플로리멜을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초서를 끌어들이며 캠벨과 텔라몬드의 우정을 작품의 주제로 설정한 것인가? 과연 우정은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서의 역할을

¹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선녀여왕』의 텍스트는 도로시 스티븐즈(Dorothy Stephens)가 편집한 2006년 판이며 이후로 텍스트에 대한 인용은 모두 괄호 안에 권, 칸토, 연, 행의 번호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스티븐즈의 주석을 인용한 경우는 쪽 번호로 표기한다. 텍스트의 우리말 번역은 본인의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인가?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캠벨과 텔라몬드의 이야기는 작품의 다른 에피소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본 논문은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와 스펜서의 『선녀여왕』 제 4권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는 신비한 동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망스이다. 타타리(Tartarye) 지역의 사라이(Saray)에 사는 캄뷰스칸(Cambyuskan) - 징기스칸의 다른 이름 - 은 위대한 왕이다. 그는 “용감하고, 부귀하며, 현명하고, / 베풀 줄을 알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했으며, / 자신의 말에 신의가 있고, 자비롭고, 명예를 중요시”(hardy, wys, and riche, / And pitous and just, alwey yliche; / Sooth of his word, benigne, and honorable; 19-21) 하는 이상적인 인물이다.² 그에게는 두 아들 - 알가르시프(Algarsyf)와 캄발로(Cambalo) - 과 막내딸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카나세(Canacee)이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지 20년째 생일잔치에 갑자기 한 신비한 기사가 황동의 말을 타고 들어와 네 가지 선물을 증정한다. 이 세상 어디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황동의 말(steed of bras),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울(mirour), 새들의 언어와 약초에 대한 지식을 주는 반지(ryng), 그리고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는 칼(naked sword)이 바로 그것이다. 카나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반지를 통해 사랑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매(faucon)를 구해주지만 화자인 수습기사는 캄뷰스칸의 정복, 알가르시프의 모험, 캄발로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멈춘다.

많은 비평가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거니와 『수습기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화자의 문제이며, 둘째는 미완성의 문제이고, 셋째는 근친상간의 문제이다. 처음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평가들은 초서의 작품이 시인에 의한 의도적인 미완성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³ 린디 존스(Lindley M. Jones)는 이야기의 화자인

² 초서의 텍스트는 1981년 판 *The Riverside Chaucer*이며 이후의 인용은 모두 괄호 안에 행의 번호로 표기한다. 초서의 작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이동일·이동춘이 옮긴 『켄터베리 이야기』(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를 따랐다. 다만 등장인물의 이름은 초서의 경우와 스펜서의 경우를 각기 다르게 표기했는데(초서의 작품은 캄발로와 카나세, 그리고 스펜서의 경우는 캠벨과 캐네시) 이는 중세영어의 발음과 16세기 영어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습기사가 상위계층이기는 하지만 미숙하고, 의욕은 넘치지만 아버지인 기사만큼 논리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화려하게 펼쳐놓은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습기사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민감하고도 자의식적인 예술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것처럼 불충분한 특성은 초서의 지속적인 통제아래에서 면밀하게 구성된 것이다”(315). 이야기의 대가인 초서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수습기사를 내세워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카모우스키(William Kamowsk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습기사가 수사적 기교들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92). 과연 수습기사가 전하는 이야기란 매가 카나세에게 전하는 사랑이야기의 절반 정도가 전부이다. 패트릭 체니(Patrick Cheney) 같은 비평가는 수습기사의 미숙한 이야기 방식을 통하여 초서가 로망스를 패로디(parody)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139), 레슬리 코데키(Lesley Kordecki)도 초서의 의식 속에서 로망스라는 장르는 이미 구식이었기 때문에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겨졌다고 보고 있다(293).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초서의 작품은 로망스라는 장르에 대한 풍자로 볼 수도 있겠고, 초서가 작품을 통해서 이미 한 물 간 기사계급과 기사도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앤 히긴스(Anne Higgins)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9).⁴

흥미로운 것은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골유지(Franklin)가 마치 수습기사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처럼 젊은이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기사 양반, 정말이지, 잘 하였소, / 고상하게 말ियो. 당신의 재주를 칭찬하는 바이요”(In feith, Squire, thow hast hee wel yquit / And gentilly. I precise wel thy wit; 673-74). 시골유지의 말은 반어적 빈정거림일 수도 있고, 어린 수습기사로서 그만하면 잘했다는 칭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일 수습기사의 의도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기사 이야기』보다 더 길고 지루한 이야기와 씨름했어야 했을 것이다. 천재적인 이야기꾼으로서 초서의 능숙함을 엿볼 수

³ 이에 대해서는 Berry, Jones, Kamowski, Kordecki, Kahrl, Peterson 등을 볼 것.

⁴ 물론 조셉 데인(Joseph A. Dane) 같은 비평가는 윌리엄 캐스턴(William Caxton)의 판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습기사의 이야기』의 텍스트와 인쇄의 역사를 상세히 밝히고 로망스가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였음을 증명하면서, 작품이 패로디라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309-16).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막상 스펜서는 초서의 작품이 미완성인 이유가 원고의 상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다 망쳐버리며, 고귀한
지혜의 작업들을 다 버려놓는 악한 시간이
그 유명한 기념의 업적들을 모두 손상시켜
우리 모두가 듣고 풍요로워 질 수 있었던
영원히 귀한 보물을 세상에서 강탈해버렸다.
오, 저주스런 시간이여, 글을 먹는 자벌레여.

But wicked Time that all good thoughts doth waste,
And workes of noblest wits to nought out weare,
That famous moniment hath quite defaste,
And orbd the world of threasure endlesse deare,
That which mote have enriched all us heare.
O cursed Eld the cankerworme of writs. (IV.ii.33.1-6)

그렇다면 초서의 미완성 작품을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스펜서의 선언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대 시인이 이미 완성했으나 원고가 상실된 부분을 자신이 채워 넣겠다는 뜻이라면 스펜서의 이야기는 초서의 수습기사가 이야기하겠다고 공언한 부분, 즉 캄뷰스칸과 알가르시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스펜서는 다만 캄발로의 이야기만을 진행시키면서 줄거리를 비틀어 이상적인 우정과 사랑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과연 캄벨(Cambel)과 캄비나(Cambina), 트리아몬드(Triamond)와 캐내시(Canacee)에 관한 스펜서의 이야기에서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는 설자리가 없다.⁵ 그렇다면 스펜서는 초서의 작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체니는 스펜서가 초서의 미완성 작품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로망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모티프—사랑, 마법, 그리고 기사도적 영웅주의—때문이라고 주장한다(137). 여기에 동양의 신비함이 더해져 작품은 있는 그대로 신비하고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젊은 밀턴(John Milton)도 『일

⁵ 주디스 앤더슨(Judith H. Anderson)은 스펜서가 초서의 권위를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원작을 패로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1).

펜서로소』(Il Penseroso)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초서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니면 절반만 이야기한 그를 상기하라
 용맹스런 캄버스칸의 이야기와,
 캄발이나 알가시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통한 반지와 거울을 가진
 캐내시를 아내로 맞이한 자에 관해,
 그리고 타타르 왕이 타고 다녔던
 놀라운 황동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Or call up him that left half told
 The story of Cambuscan bold,
 Of Camball and of Algarsife,
 And who had Canacce to wife,
 That owned the virtuous ring and glass,
 And of the wonderous horse of brass,
 On which the Tartar king did ride. (109-15)

위대한 왕의 잔치에 갑자기 뛰어든 이방의 기사는 흡사 『거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의 첫 장면과도 비슷한 흥미와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선물은 모두 신비롭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한 관심을 떨치기 어렵다. 브리튼 하우드(Britton J. Harwood) 같은 비평가는 작품의 선물주기에 주목하면서 결국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는 그 자체로 선물을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물주기, 또는 그럴 가능성은 이야기 경연, 즉 미리 합의된 경제적 교환 방식이라는 배경에서도 나타난다. 상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떤 지점에서 해당 상품의 가치에 합의하게 된다”(27). 다시 말하면 『수습기사의 이야기』가 비록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청자인 다른 순례자들에게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교환가치를 주었다는 것이다. 신비롭고 환상적이며 청자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는 『수습기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미완성이기에 더욱 더 매력 있는 작품으로 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위에 인용한 밀턴의 관심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펜서가 자신의 이야기 주제로 삼은 남매-캄발로와 그의 여동생 카나세-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초서의 작품에서 캄발로는 자신의 여동생을 두고 두 형제와의 마상시합에서 승리하여 그녀를 차지한다. “그런 다음, 캄발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 카나세를 얻기 전에 / 카나세를 위하여 그는 두 형제들과 마상시합을 했답니다”(And after wol I speke of Cambalo, / That faught in lystes with the bretheren two / For Canacee er that he myghte hire wyne; 667-69).⁶ 캄발로와 카나세는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평자들 또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존 파일러(John M. Fyler)는 전통적으로 “로망스라는 장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끊임없이 근친상간의 관계에 몰두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초서의 작품이 세 가지 형태의 타자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작품에는] 타자를 보는 세 가지 연관된 관점이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그 유사성과 어쩔 수 없는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남성이 보는 여성의 관점과 기독교도인 유럽인이 보는 이교도인 타타르인의 관점, 그리고 인간이 보는 매의 관점인데, 이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그 통합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모두가 각각 문제를 제기한다. (12)

이교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근친상간은 초서에게나 이야기를 듣는 순례자들에게도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켄트 레노프(Kent R. Lehnhof)는 궁극적으로 왕족은 근친상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스펜서의 작품에서 브리토마트와 아테걸의 관계도 남매(Isis-Osiris), 또는 부녀(Myrrha-Biblis) 등 근친상간의 관계로 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23, 227-29).⁷ 한편 체니는 스펜서가 캄비나를 등장시켜 캄벨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원작이 갖는 근친상간의 위험을 피하고 이상적인 화합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⁶ 역자들이 “For Canacee”를 “카나세를 위하여”로 번역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근친상간의 암시를 피하기 위하여 “카나세를 차지하려고”로 번역하지 않은 것일까?

⁷ 물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첫 아내인 아라곤의 캐서린(Catherine of Aragon)과 이혼하기 위한 사유가 근친상간이었다는 사실과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앤 볼린(Anne Boleyn)이 자신의 사촌오빠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그녀를 낳았다는 소문도 잠재우려는 스펜서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초서에게 변태적인 사회적 관계가 스펜서에게는 행복한 형이상학적 결합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초서 (또는 수습기사)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은 스펜서에게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154)

다시 말하면 초서의 작품에서 근친상간의 관계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한 남매의 이야기를 스펜서가 해결했다는 것이다.

스펜서가 새로운 남매, 즉 트리아몬드와 캄비나를 등장시켜 주인공 남매와 서로 엇갈린 결혼을 하도록 한 것에 주목하면 스펜서는 원작이 가지는 근친상간의 위험을 피한 것처럼 보인다. 캐롤 헤퍼난(Carol Heffernan)은 성적인 변태성을 서양이 동양을 보는 관점 중 하나라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시각에 공감하면서 스펜서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다(40). 헤퍼난의 관점에 따르면 스펜서는 선녀의 기사들에게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과연 초서는 근친상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초서의 원작에서 근친상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은 캄발로가 카나세를 차지하려고 두 형제들과 마상시합을 했다는 두 행이 전부이다(“That faught in lystes with the bretheren two / For Canacee er that he myghte hire wyne”). 그런데 여기서 “두 형제”(the bretheren two)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등장한 인물 중에 두 형제란 바로 카나세의 두 오빠밖에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은 두 형제를 알가르시프와 캄발로라고 본다면 카나세를 원하는 남성이 오빠인 캄발로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다소 엉뚱한 것이 사실이다. 파일러는 스킷과 보우(Skeat and Baugh)가 편집한 초서의 텍스트에서 카나세를 차지한 자가 오빠가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남성이라고 제시한 것을 놓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초서가 이야기를 중단한 것도 근친상간의 실현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14). 하지만 펙귄(Penguin) 판의 편집자 네빌 코힐(Nevill Coghill)도 카나세를 위해 마상시합을 한 자가 “또 다른 캄발로”(another Cambalo)라고 제시하고 있다(407). 결국 중요한 것은 초서의 작품에 과연 근친상간이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스펜서가 어떻게 원작을 변형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느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펜서는 비록 자신이 초서의 이야기를 완성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원작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초서에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초서와는 전혀 다른, 개신교도로서 스펜서의 로망스이다. 다시 말하면 스펜서의 로망스는 개신교의 도덕관, 즉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브리토마르와 아테겔, 아모렛과 스쿠다모어, 그리고 플로리멜과 마리넬의 관계가 모두 결혼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긴스같은 비평가는 스펜서가 사실상 『수습기사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기사 이야기』에서 그 구조와 주제를 빌려 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21-23). 조나단 골드버그(Jonathan Goldberg)는 스펜서가 사실상 초서의 작품이 예고한 결말을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캠벨 등의 이야기는 『선녀여왕』 제 4권의 칸토 한 개 반의 분량에 불과한 점과 이들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새터레인(Satyrane)의 경기에서 여러 기사들 중 일부로 등장하고는 작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며 스펜서에서 캠벨 일행의 이야기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43). 골드버그에 의하면 결국 초서의 원작은 스펜서에 의해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내팽개쳐지고 잊혀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43). 같은 맥락에서 조세핀 베넷(Josephine Waters Bennett)도 역시 스펜서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브리토마르와 플로리멜이며 캠벨 등은 단지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서, 이처럼 사소한 에피소드를 작품의 제목으로—“캠벨과 텔라몬드, 또는 우정의 전설”—삼은 것은 아마도 출판업자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다소 영똥한 제안을 하고 있다(167). 하지만 누군가가 캠벨 등의 이야기를 (사랑을 포함한) 이상적인 우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시인 자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는 제 4권 전체를 아우르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며, 주인공들을 포함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제 4권의 서시에서 자신이 “신성한 성인, 주권자이신 여왕께 … 사랑을 노래하노라”(to that sacred Saint my sovereigne Queene . . . I sing of love; IV.proem.4.2, 6)고 선언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랑은 모든 명예와 모든 도덕의 근원이며
진정한 연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왕관을

씩위주어 찬란한 영예의 꽃을 피움으로써
그들이 그 보상을 사랑하여 방탕하지 않도록 하나니.

For it of honor and all vertue is
The roote, and brings forth glorious flowres of fame,
That crone true lovers with immortall blis,
The meed of them that love, and do not live amise. (IV.proem.2.6-9)

여기서 시인이 “사랑”(love)으로 표현한 것은 고전적 관점에서의 아가페(agape), 필리스(philis), 그리고 에로스(eros)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스펜서가 제 4권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사랑은 동성 간의 우정을 포함한 사랑이다.⁸ 이미 제 3권에서 다루어진 정절(chastity)의 미덕이 진정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듯이 우정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멜리사 사체즈(Melissa E. Snachez)는 스펜서가 제 4권의 주제인 우정을 공공의 미덕인 정의를 다루는 5권과 예절을 다루는 6권으로 가는 통로로 설정했다고 진단하면서 캠벨 일행의 우정이 작품의 중심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251). 또한 윌리엄 존슨(William C. Johnson)은 이들을 작품의 서두에 소개되는 패리델(Paridell)과 블랜드모어(Blandamore)의 거짓 우정과 대조시킨다.

화자가 초서의 작품에 대한 스펜서 자신의 결론을 드러내면서 거짓 친구들은 장면에서 사라진다. 화자의 이야기는 결국 불법적인 매혹을 용납할만한 관계-쌍둥이 관계, 우정, 혈연관계와 결혼-로 전환시킨 사인조[캠벨 일행]를 전면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351)

프리아몬드(Priamond), 디아몬드(Diamond), 트리아몬드는 “어느 복된 어머니의 한 배에서 태어났고 / 어느 복된 아침에 함께 해산하여 태어난”(Borne of one mother in one happie mold, / Borne at one burden in one happie morne; IV.ii.41.3-4) 세쌍둥이며, 서로 지극한 형제애를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어머니 이름이 아가페(Agaphe)라는 것이다. 안테아 홈(Anthea Hume)의

⁸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t) 철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는 사랑(amour)을 그리스어 에로스와 필리스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이순아).

설명대로 이들 삼형제의 영혼이 각각 다음 형제의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은 “우정의 한 형태로서 형제애(brotherly love)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랑의 뿌리는 아가페이다(180-81). 작품이 알레고리인 것을 엄두에 두면 형들의 영혼을 (또는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트리아몬드는 결국 형제애의 상징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 트리아몬드가 작품의 제목에서 텔라몬드(Telamond)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작가의 실수나 착오로 간과하기에는 두 이름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 하지만 1964년에 토마스 로쉬(Thomas P. Roche)가 텔라몬드가 “완벽한 세계”(perfect world)를 의미하며 우주를 이루는 세 세상인 대지(terrestrial), 하늘(celestial), 그리고 그 위의 세계(supercelestial)가 각각 프리아몬드(prima+mundus), 디아몬드(duo+mundus), 그리고 트리아몬드(tres+mundus)와 서로 부응하기 때문에 제목이 “캠벨과 완벽한 세계의 전설”(Legend of Cambell and the Perfect World)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15-17), 많은 평자들이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트리아몬드가 삼형제를 상징하는 존재라면 캠벨이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대상은 트리아몬드 혼자가 아니라 삼형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스펜서가 초서의 작품에서 빌려온 것이 캠벨과 그의 여동생 캐내시라면, 트리아몬드와 그의 여동생 캄비나는 스펜서가 창작한 존재이다. 캠벨이 캐내시의 반지 덕분에 상처를 입지 않고 험한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설정은 얼핏 보면 초서의 발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방인 기사가 카나세에게 선물한 반지는 그 소유자에게 온갖 약초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스펜서의 캐내시가 캠벨에게 준 반지는 그 자체로 소유자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그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쇠약해진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반지에 놓인 그 돌의 위력을
 통하여 침체된 영혼을 복돋아주는 것이다.

⁹ 트리아몬드가 두 형의 죽음을 보고도 이에 대한 복수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영광스런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Ne desperate of glorious victorie; IV.iii.25.2)는 시인의 묘사도 프리아몬드와 디아몬드가 죽었다기보다는 트리아몬드 안에 살아있다는 암시가 될 것이다.

The which not onely did not from him let
 One drop of bloud to fall, but did restore
 His weakned powers, and dulled spirits whet,
 Through working of the stone therein yset. (IV.iii.24.2-5)

사실상 캐내시가 오빠에게 반지를 주었다는 설정도 스펜서의 창작이다. 아가페의 세 아들의 경우처럼 형제간의 우애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장치로 보인다.

스펜서의 초현실적 상상력과 과장(hyperbole)은 캄비나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그녀는 “숲에서 데려온 두 험악한 사자”(Of two grim Lyons, taken from the wood)가 끄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꾸며진”(decked was in wondrous wize) 마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시인은 그녀가 “마법의 학문과 모든 예술을 교육받았고 … 누구보다도 탁월했다”(learned wasw in Magicke leare, / And all the artes . . . farre exceld all other)고 설명하고 있다(IV.iii.38-40). 이는 앞서 캐내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 자연의 은밀한 조화에 모두 능통했다”(Well seen in everie science that mote bee, / And every secret worke of natures wayes; IV.ii.35.3-4)는 묘사와도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마치 “천사의 혈통을 타고난 듯”(seemed borne of Angels brood) (IV.iii.39.7) 묘사되는 그녀는 경기장 내의 모든 참석자를 압도하는 여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오른손에 평화의 지팡이를 들었는데,
 지팡이에는 두 마리의 독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한 채 서로 뒤엉켜 있었고,
 뱀의 꼬리는 서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둘 다 하나의 올리브 화관을 쓰고 있었기에,
 마치 마이아스의 아들이 그것을 휘둘러서
 지옥의 악귀들을 당황시킨 지팡이 같았다.
 또한 그녀는 다른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고
 그 잔에는 니켄티가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있었다.

In her right hand a rod of peace shee bore,
 About the which two Serpents weren wound,

Entryled mutually in lovely lore,
 And by the tailes together firmly bound,
 And both were with one olive garland crownd,
 Like to the rod which Maias sonne doth wield,
 Wherewith the hellish fiends he doth confound.
 And in her other hand a cup she hild,
 The which was with Nepenthe to the frim upfild. (IV.iii.42)

캐슬린 윌리엄즈(Kathleen Williams)는 캄비나를 화합(concord)의 상징으로 보고 그녀가 들고 있는 머큐리(Mercury)–“마이아스의 아들”–의 지팡이가 “사랑과 우정, 그리고 교묘한 화합”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4). 등장인물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캄비나는 사랑과 우정을 다루고 있는 제 4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카두시어스(Caduceus)와 니펜티로 대변되는 그녀의 초인간적인 능력은 캄벨과 트리아몬드로 하여금 “서로를 가격하는 대신 기쁘게 입 맞추고 /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스레 껴안으며 / 손을 잡고 영원한 친구임을 맹세하도록”(Instead of strokes, each other kissed glad, / And lovely haulst from feare of treason free, / And plighted hands for ever friends to be; IV.iii.49.3-5)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도록 한다. 그녀의 등장이 두드러지게 극적인 이유도 그녀의 역할이 작품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Evans 186). 토마스 케인(Thomas H. Cain)은 캄비나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카두시어스가 장미전쟁을 끝낸 튜더(Tudor) 왕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32). 그렇다면 그녀가 대변하는 여왕은 스펜서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왕의 모습일 터이다.

초서의 수습기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캄발로와 카나세를 소개한 채 미완성으로 이야기를 끝냈다면, 스펜서는 수습기사가 소개한 인물을 이용하여 가장 조화로운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를 만든 셈이다. 초서의 캄발로와 카나세가 근친상간의 위험을 내포한 이교도라면, 스펜서의 캄벨과 캐내시는 마법처럼 온 세상을 품으며 화합하는 이상을 실천하는 요정들(fairies)이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과 행동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우정을 가능하는 잣대가 된다. 캄벨 일행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페리텔과 블랜드모어의 거짓 우정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예컨대 티미아스(Timias), 아모렛, 스쿠다모

어, 벨피비 등-의 행동조차도 그 이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점이 작품의 이상적인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칸토 5에 등장하는 스퀴다모어는 아테(Ate)의 거짓말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가시처럼 그의 질투심을 자극했고 / 독화살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어 버렸다”(The which like thornes did pricke his gealous hart, / And through his soule like poysned arrow perst; IV.v.31.3-4). 케어의 집(House of Care)에서 “그런 불안함과 심장을 찌는 고통으로”(In such disquiet and hartfretting payne; IV.v.45.1)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빼돌려진 사랑의 모습을 본다.¹⁰ 그는 사실상 무력으로 아모렛을 강탈했다. 그는 비너스 사원(Venus Temple)에 들어가 여사제인 아모렛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면서 그녀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 “교회당에서 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지만, / 내가 그토록이나 힘든 역경을 거쳐 왔는데 /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에”(For sacrilege me seem’d the church to rob, / And folly seem’d to leave the thing undonne, / Which with so strong attempt I had begonne; IV.x.53.3-5). 아모렛의 경우도 이상적인 연인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축제에서 “나쁜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ill of friends bestedded; IV.i.3.7) 버지레인(Busyrane)에게 납치당했다. 그녀는 비록 악당에게 자신의 순결을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브리토마트에 의해 제 3권의 마지막에 구출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칸토 7에서 그녀는 또 다시 방심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of nought affeard; IV.vii.4.1)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러스트(Lust)에게 사로잡히고, 아서(Arthur)의 시종인 티미아스에게 상처를 입기에 이른다.¹¹ 어쩌면 스퀴다모어와 아모렛의 재회가 극적인 화합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도 두 연인의 사랑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시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스펜서가 제 3권의 서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던 벨피비도 제 4권에서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녀의 모습, 특

¹⁰ 나다니얼 스미스(Nathaniel B. Smith)도 스퀴다모어를 스펜서의 작품 안에서 “가장 덜 사랑받는 기사”(least-loved knights)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있다(72).

¹¹ 아모렛이 입은 상처는 티미아스가 어쩔 수 없이 입힌 것이기는 하지만, 스티븐즈에 의하면 알레고리에서는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티미아스가 원래의 고결한 의도와는 달리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으로 아모렛을 범했다는 것이다(361 note).

히 티미아스와 아모렛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녀의 행동에 대한 데이비드 윌슨-오카무라(David Scott Wilson-Okamura)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녀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숲에 동반자들이 있지 만 친구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며 남성들의 관심을 즐긴다. 하지만 그녀가 비록 남성들과 희롱하거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여성에게 주목하면 질투한다. 이것은 뺄뺄어지고 부당한 처사이다. (53)

에이치 존스(H. S. V. Jones)도 벨피비가 “차갑고 매정한”(harsh and ungenerous) 성품을 가졌다고 지적하고 있다(218). 물론 아서의 시종으로서 이상적인 젊은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티미아스가 벨피비를 향한 전형적인 궁정식 사랑에 빠지는 모습도 이상적인 사랑의 모양새가 아니다. 사체즈는 이들 두 쌍의 관계를 캠벨 일행의 우정과 대비시키며, 이들이 “잠재적으로 캠벨, 캐내시, 트리아몬드, 캄비나가 구현하는 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66). 하지만 과연 시인이 이들을 캠벨 일행의 우정을 왜곡할 만큼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제 4권에서 캠벨 일행의 모습은 다른 모든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스쿠다모어-아모렛과 티미아스-벨피비의 모습은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편 베넷은 작품에서 캠벨 일행의 모습보다는 칸토 8과 9에 소개되는 하급 시종(Squire of low degree)의 우정이 작품의 주제를 더욱 잘 드러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스펜서가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구현하는 책을 쓰려고 의도했다면 캠벨과 트리아몬드의 결투는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플라시다스가 자신의 충실한 친구 에이미아스를 구해주는 것이야말로 책 전체가 추구하는 탁월한 과업이다. (170)

하지만 과연 스펜서가 작품에서 구현하려는 우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토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하급시종들의 행동이 작품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우정을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랑하는 이가 따로 있었던 에이미아

스(Amyas)는 “자유 찾기 위하여”(his libertie to get; IV.viii.53.6) 페아나(Poena)의 사랑을 받아들인데, 그와 똑같이 생긴 플라시다스(Placidus)는 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영혼만큼이나 그에게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the fervent zeale . . . to him as to my soule did beare; IV.viii.55.2-3) 친구를 위해 스스로 감옥에 갇힌 후 친구를 대신하여 페아나와 사랑을 나눈다. 결국 아서에 의해 모두 구출된 후 플라시다스는 페아나와 결혼하고, 에미미아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에밀리아(Aemylia)와 맺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시인은 칸토 9의 서두에서 “세 가지 형태의 사랑”(three kinds of love) 즉 아가페(agaphe), 에로스(eros), 그리고 필리스(philis)에 대해 언급하고 “이중에서 도덕적 마음의 / 우정의 결속이 고귀한 마음을 가장 확실히 묶어준다”(of them all the band of vertuous mind / Me seemes the gentle hart should most assured bind)고 선언한다. 그런 후에 “영혼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을 넘어서 있다”(love of soule doth love of bodie passe)는 증거로서 “이 시종들의 소중한 우정”(these Squires true friendship)을 내세우고 있다(IV.ix.1-3). 하지만 이들은 우정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는 반증은 될지 몰라도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상적인 사랑과 우정의 표본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플라시다스가 보여주는 우정의 표현—친구를 위해 스스로 여성의 노예가 된 후 홀로 도주하는 행동—은 “도덕적”이기도 어렵거니와 맹목적이다. 또한 스펜서의 작품이 궁극적으로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는 훈육서(Courtesy book)라는 점과 기사들의 사랑과 모험을 다루는 로망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급시종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는 부수적인 에피소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우정과 사랑이 아서 왕자의 무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이야기는 하급 시종들의 아름다운 우정이 기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캠벨 일행이 제시하는 사랑과 우정의 기준에 맞는 인물은 누구인가? 그것은 『선녀여왕』 3권과 4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토마트라고 해야 하겠다. 제 3권에서 정절을 대변하는 기사로 등장하는 그녀는 제 3권의 마지막에서 아모렛을 구출하지만, 거울에서 보고 사랑하게 된 기사를 찾아 나서는 그녀의 과업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제 4권 칸토 6에서 그와 조우하고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기까지 그녀는 아모렛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겪는다. 정절을 대

변하는 그녀가 우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트레이시 세딩거(Tracy Sedinger)는 『선녀여왕』에서 우정은 대체로 남성들끼리의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우정은 문학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펜서는 동성애적인 감정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여성들 간의 / 우정을 억누른다. 스펜서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한 여성적 주체성 (feminine subjectivity)에 대한 탐구-정절, 우정, 그리고 정의라는 세 권의 책에 펼쳐져 있는 브리토마트의 이야기-속에 이러한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92-93)

하지만 그녀가 제 4권의 도입부에서 자신의 실체를 공개한 후 아모렛과 가지는 관계는 노골적인 여성들 사이의 우정에 다름 아니다. 브리토마트와 아모렛은 서로 “솔직한 애정을 표현하고”(franke affection . . . afford),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으며”(all that night they of their loves did treat), “상대에게 커다란 열정을 품게 된다”(each the other gan with passion great; IV.i.15-16). 두 여성의 우정에 대한 스펜서의 묘사는 오히려 동성애적인 암시를 내비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는 캠벨과 트리아몬드가 캄비나의 잔을 마신 후 “서로 기쁘게 입 맞추고,” “사랑스레 껴안으며,” “영원한 친구임을” 맹세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두 기사를 화해시킨 캄비나도 캐내시를 친구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아름다운 캐내시를 자기 곁에 꼭 붙잡고 / 자신의 마차에 오른 후 집을 향해 떠났다”(taking by her side / Faire Canacee . . . Unto her coch remounting, home did ride; IV.iii.51.6-8).

로망스에서 전투는 기사도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다. 캠벨과 트리아몬드가 서로 싸웠다는 사실이 둘 사이의 우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에이치 창(H. C. Chang)은 작품에서 기사도(chivalry)는 단지 “알레고리의 언어”(the language of allegory)라고 지적하면서 캠벨과 트리아몬드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지만 결국 화합을 통해 기사도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희망에 대한 환희에 찬 표현”(a jubilant expression of hope in man)이라고 주장한다(150). 사실상 작품에서 전투는 선한 기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기사들은 그 때문에 더욱 견고한 우정을 다짐하곤 한

다. 따지고 보면 브리토마트와 아테걸의 경우도 전투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을 약속하는 계기를 만든다. 로날드 호튼(Ronald Arthur Horton)의 지적대로, 『선녀여왕』 제 4권은 이상적인 결혼이 결국 우정이라는 스펜서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번성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결혼은 반드시 우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향한 브리토마트의 모험은 제 3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제 4권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그녀의 사랑은 결혼을 통한 성적 사랑의 완성에 필요한 사립과 우정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106)

브리토마트와 아테걸은 칸토 6에서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들의 혼인은 정의의 기사 아테걸이 자신의 과업이 정의를 올바로 구현하기까지 미루어져 있다.¹²

스펜서는 스스로를 초서의 후계자라고 여기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 그대의 영혼과의 달콤한 접목을 통해서 / 나는 여기서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는 공언을 자신의 작품에서 실현하였다. 하지만 그가 미완성인 초서의 『수습기사의 이야기』를 완성한 것은 아니며, 그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창조한 알레고리는 그 자신의 세계이며, 비록 선대 시인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권위에 기대어 자기 작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스펜서는 자신이 초서에 필적할만한 시인이라고 믿었기에 초서의 인물들과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의 만남과 우정을 작품의 중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서의 주인공들은 스펜서의 작품에서 다만 사랑과 우정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토 4에 묘사된 새터레인의 전투에서 그들은 스펜서의 다른 여러 기사들 중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며 브리토마트를 위시한 스펜서의 기사들이 다시 작품의 즐거움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캠벨 일행이 보여주는 화합과 우정의 모습은 다른 기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우정이라는 다소 애매한 도덕적 규범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펜서가 『선녀여왕』 제 4권을 통해

¹² 사실상 현존하는 『선녀여왕』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다만 암시되어 있을 뿐, 서술되지는 않는다.

초서의 주인공들에게 새로이 부여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펜서가 초서의 영어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재현하려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가 선대 시인이 창조한 인물들을 자신의 작품에 되살려 작품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낸 스펜서의 의도를 고려하면, 우리는 그가 과연 초서라는 선대 시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에드먼드 스펜서, 『선녀여왕』 제 4권, 제프리 초서, 『수습기사의 이야기』 우정, 캠벨, 캠비나, 텔라몬드, 트리아몬드, 브리토마트

인용문헌

- 이동일·이동춘 역. 『캔터베리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이순아. 「피치노의 플라톤주의적 미 이론」. 밀턴과 근세영문학회 학술 발표회 발표논문. 2011년 5월 28일.
- Anderson, Judith H. “‘A Gentle Knight was pricking on the plaine’: The Chaucerian Connection.”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15 (1985): 166-74.
- Bennett, Josephine Waters. *The Evolution of The Faerie Queene*. New York: Burt Franklin, 1960.
- Benson, Larry D., ed. *The Riverside Chaucer*.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Berry, Craig A. “Flying Sources: Classical Authority in Chaucer’s ‘Squire’s Tale.’” *ELH* 68.2 (2001): 287-313.
- Cain, Thomas H. *Praise in The Faerie Queene*. Lincoln: U of Nebraska P, 1978.
- Chang, H. C. *Allegory and Courtesy in Spenser*. Edinburgh: Edinburgh UP, 1955.
- Cheney, Patrick. “Spenser’s Completion of *The Squire’s Tale*: Love, Magic, and Heroic Action in the Legend of Cambell and Triamond,” *Journal of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5 (1985): 133-55.
- Dane, Joseph A. “‘Tyl Mercurius House He Flye’: Early Printed Texts and Critical Readings of the ‘Squire’s Tale.’” *Chaucer Review* 34.3 (2000): 309-16.

- Evans, Maurice. *Spenser's Anatomy of Heroism: A Commentary on The Faerie Queene*. Cambridge: Cambridge UP, 1970.
- Fyler, John M. "Domesticating the Exotic in *The Squire's Tale*." *ELH* 55.1 (1988): 1-26.
- Goghill, Nevill. ed. *The Canterbury Tales*. London: Penguin, 1951.
- Goldberg, Jonathan. *Endlesse Work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1.
- Hamilton, A. C., ed. *The Faerie Queene*. London: Longman, 1977.
- Harwood, Britton J. "Chaucer and the Gift (If There Is Any)." *Studies in Philology* 103.1 (2006): 26-46.
- Heffernan, Carol. "'Squire's Tale': The Poetics of Interlace or the 'Well of English Undefined.'" *Chaucer Review* 32.1 (1997): 32-45.
- Higgins, Anne. "Spenser Reading Chaucer: Another Look at the 'Faerie Queene' Allusions."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89.1 (1990): 17-36.
- Horton, Ronald Arthur. *The Unity of The Faerie Queene*. Athens: U of Georgia P, 1978.
- Hume, Anthea. *Edmund Spenser: Protestant Poet*.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Johnson, William C. "Spenser's Hermetic Tricksters in *The Faerie Queene* III and IV." *English Studies* 83.4 (2002): 338-55.
- Jones, Lindey M. "Chaucer's Anxiety of Poetic Craft: *The Squire's Tale*." *Style* 41.3 (2007): 300-16.
- Kahr, Stanley J. "'Squire's Tale': and the Decline of Chivalry." *Chaucer Review* 7.3 (1973): 194-209.
- Kamowski, William. "Trading the 'Knotte' for Loose Ends: *The Squire's Tale* and the Poetics of Chaucerian Fragments." *Style* 31.3 (1997): 391-412.
- Kordecki, Lesley. "'Squire's Tale': Animal Discourse, Women, and Subjectivity." *Chaucer Review* 36.3 (2002): 277-97.
- Lehnhof, Kent R. "Incest and Empire in *The Faerie Queene*." *ELH* 73.1 (2006): 215-43.
- Milton, Joh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Hughe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7.
- Peterson, Joyce E. "The Finished Fragment: A Reassessment of the 'Squire's Tale.'" *Chaucer Review* 5.1 (1970): 62-74.
- Roches, Thomas. *The Kindly Flame: A Study of the Third and Fourth Books of Spenser's Faerie Queene*. Princeton: Princeton UP, 1964.

- Sedinger, Tracey. “Women’s Friendship and the Refusal of Lesbian Desire in *The Faerie Queene*.” *Criticism* 42.1 (2000): 91-113.
- Smith, Nathaniel B. “Shielded Subjects and Dreams of Permeability: Fashioning Scudamour in *The Faerie Queene*.” *Medievalia et Humanistica* ns 34 (2008): 71-85
- Snachez, Melissa E. “Fantasies of Friendship in *The Faerie Queen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37.2 (2007): 250-73.
- Stephens, Dorothy, ed. *The Faerie Queene*. Indianapolis: Hackett, 2006.
- Williams, Kathleen. *Spenser’s World of Glass: A Reading of The Faerie Queen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6.
- Wilson-Okamura, David Scott. “Belphoebe and Gloriana.”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39.1 (2009): 47-73.

ABSTRACT

**“The footing of thy feete”:
Chaucer in Book 4 of *The Faerie Queene***

Sung-kyun Yim

In Canto 2, Book 4 of *The Faerie Queene*, praising Geoffrey Chaucer as a “renowned Poet” and “well of English undefyled,” Edmund Spenser declares that he would complete Chaucer’s *The Squire’s Tale* by following “the footing of [Chaucer’s] feete.” It seems, however, that Spenser neither completes Chaucer’s unfinished work, nor does the part in which he deals with Cambel and Canacee occupy the center of Book 4. As a matter of fact, rather complicated stories of and between Britomart, Amoret, Scudamoure, Artegall, and Florimell take up the major part of the work, which is supposed to deal with a friendship between Cambel and Telamond. Furthermore, unlike the preceding books, Book 4 does not present a hero who ultimately achieves a given task at the end of the work. Redcross, Guyon, and Britomart, the heroes of the three preceding books, all defeat the villains eventually, so as to accomplish their missions. Book 4, however, ends with the reunion of Florimell and Marinell occasioned by the marriage of personified rivers. Why, then, the poet draws Chaucer in his work and calls it “the Legend of Cambel and Telamond, or Friendship”? Does friendship indeed function as a central motif of the work? Who is the hero of the work, or is there any? What does the story of Cambel and Telamond have to do with other episodes? While examining Chaucer’s *The Squire’s Tale* and Book 4 of *The Faerie Queene* together, this paper is to provide certain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consequently to understand Spenser’s idea of true friendship manifested in Book 4 of *The Faerie Queene*.

Key Words | Edmund Spenser, Book 4 of *The Faerie Queene*, Geoffrey Chaucer, *The Squire’s Tale*, friendship, Cambel, Telamond, Britomart

원고 접수 2011년 6월 24일 | 심사 완료 2011년 7월 14일 | 게재 확정 2011년 7월 15일